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스님들의 도박

지난 해 고계는 물론 세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사건을 접했다. 일부 스님들의 역대 도박사건은 마침 경제난과 수해가 겹쳐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스님들이 역대 도박을 했다.” 이 사건 보도만으로 불교신도 몇만명은 등을 돌렸을 것이다. 불교를 믿어 불가했던 사람들은 아예 다른 종교로 눈을 돌렸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포교를 해야 할 스님들이 오히려 ‘해탈행위(?)’를 자행했다고 경악했다.

한편에서는 골랐던 것이 이제야 터졌다고 엉덩이 치를 때 한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고해에서 허락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할 스님이 역대의 도박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수행자임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당시 고계는 긴급 발령지에 나섰지만 중생제도를 수행자 오히려 타락하다니 트론포, 잡화 등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후문은 여기저기서 들려 오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스님은 “역대의 도박관은 아니지만 지역스님을 가운데 몇몇이 모여 화투와 포커를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털어냈다.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스님들은 승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또 일부스님들의 음주 흡연도 예사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모 중단의 경우 중단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놓고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갈수록 침침 승속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제가 불자들도 문제다. 스님들과 함께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어겼을 때 그 죄과를 덮어주지 말라”고 했다. 상처는 밝은 곳에 드러내지 않는 절대로 그 부리를 드러낼 수 없다. 스님들의 도박 음주 흡연을 보고도 어물쩍 일버무리며 묵과하는 것도 계율을 어기는 것임을 모든 불자는 명심해야 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찰환경 대책위 결성

조계종, 석남사등 10여사찰 환경분쟁 적극 대처

본사주지회의, 정부에 대책 촉구 결의문

사찰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사찰환경대책위)가 결성됐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5일 총무원회의를 열어 사찰환경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현재 석남사 등 전국 10여개 사찰에서 진행되는 환경분쟁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사회부장 장승준과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중앙총회 사회분과위원장 여연스님을 공동대표로 위촉한 사찰환경대책위는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대책입법 추진 △사찰환경 정책 대응 △사찰환경 보존에 대한 여론작업을 벌인다.

사찰환경대책위원회로는 총무원 김희철, 해당본당사찰 주지스님, 사찰환경보존위원, 성곡보존위원회(위원장 양산 문화부장)들과 불교환경교육원 등 재가단체가 참여한다.

사찰환경대책위는 석남사와 지지사 등을 현장조사 및 해당본과위원장 여연스님을 공동대표로 위촉한 사찰환경대책위는

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준비하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찰환경 보호대책과 사찰 오배수 처리, 친환경적인 사찰 만들기 공청회를 중심으로 주최한다는 계획이다.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고산 총무원장)는 15일 사찰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대해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찰환경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열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진 추억과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동물원1박)

◇장 소: 용주사 신록사 야외정사 경수사 백련사 에버랜드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가비: 5만2천원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풍림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불교조각원·(사)한국불교교과교과복지선도회

전사법 개정안 합의

조계종-문화부 9월 국회 상정키로

조계종총무원과 문화관광부는 14일 건축법 8조4항의 폐지로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파괴 진행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632호에 전통사찰 보존구역 인근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이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환경 보호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계종과 문화관광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전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 도농공동체 매장 (봉은사 주지 원해)의 수 원포교단(주지 성관)은 13일 '도농공동체 매장' 개장식을 가졌다. '생령살리기, 생활협동조합'과 '어려움살림'으로 이름지어진 두 매장은 오이 호박 배추 등 각종 유기농과 라면 및 각종 과자류에 이르기까지 50여종의 가공품을 판매한다. 사진은 봉은사 생활협동조합. 사진:고영배 기자

관음종 종정에 혜승스님 추대

대한 불교 관음종 새 종정에 혜승스님 (천안 보살사 조실)이 추대됐다. 관음종은 8일 인천 흥륜사에서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원로위원장 혜승스님을 제5대 종정에 추대했다. 혜승스님은 1928년 충남 천안으로 55년 강원도 장선사에 입산하여 59년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종 호법위원장을 거쳐 지난 89년 원로위원장에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정취임 법회는 10월중에 개최된다.

이경숙 기자 (swjung@buddhapia.com)



관음종 새 종정에 혜승스님 (천안 보살사 조실)이 추대됐다. 관음종은 8일 인천 흥륜사에서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원로위원장 혜승스님을 제5대 종정에 추대했다. 혜승스님은 1928년 충남 천안으로 55년 강원도 장선사에 입산하여 59년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종 호법위원장을 거쳐 지난 89년 원로위원장에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정취임 법회는 10월중에 개최된다.

본말사 불교TV주식 총무원에 양도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고산 총무원장)는 15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무비, 교재편찬위원장 무관, 화엄학원 안장 도법스님과 각 유관 관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교육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 내규'를 확정했다.

교육원 관계자 3인(교육원장, 교무부장, 교육국장), 유원장 4인(또는 5인), 행자교육 관계자 10인(비구·비구니 동수), 본사

조계종 행자교육원 운영위 신설

한글교재사용·수계식 가족참여 허용

조계종은 승가 기초교육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원(원장 일면)은 14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무비, 교재편찬위원장 무관, 화엄학원 안장 도법스님과 각 유관 관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교육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 내규'를 확정했다.

교육원 관계자 3인(교육원장, 교무부장, 교육국장), 유원장 4인(또는 5인), 행자교육 관계자 10인(비구·비구니 동수), 본사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이 광고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 당신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기(고별)

변비

당뇨병

오십견

남산 스님 공개 강좌

천식

* 남산 스님의 『기적의 파스 요법』에는 164가지 질환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20만 독자가 효능을 확인한 『남산 스님의 파스 요법』에 이어 『기적의 파스 요법』 출간!!

1,000원만 가지면 전문가의 도움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고통없이 병을 이길 수 있다.

- 콧물 걸기 3분이면 뚝!
- 숙취로 인한 심한 두통 30분이면 말끔!
- 오래된 위장병 15일이면 싹!
- 불면증 20분이면

남산 스님 파스 요법의 신비한 비법을 공개 합니다.

심중 시고 한강에서 무료로 생존자 3명을 찾아낸

원정택 교수의 숨쉬는 이야기

머리를 UP-GRADE 시켜라

몸을 UP-GRADE 시켜라